열린 마음으로 미술과 즐거운 대화

'열풍변주곡'을 주제로 한 제6회 광주비엔날레가 8일 개막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6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비엔날레는 32개국 127명의 작가가 참여해 현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200% 즐기기

관람 안내

비엔날레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입장권은 광주은행 시내 전 점포에서 판매하고, 인터넷(gwangju-biennale.org)을 통해 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입장권은 ▲전시관 정문 ▲비엔날레 주차장 북문 ▲중외공원 무지개 다리 등 3곳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어른은 1만2천원(예매 1만원), 청소년은 5천원(예매 4천원), 단체관람(20명 이상)일 때는 어른 1만원(예매 8천원)이다.

'열풍변주곡(Fever Variation)'을 주제로 열리는 2006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재조명, 재해석하자는 의미와 함께 '아시아'를 전시의 기본 주제로 삼고 있다.

휴일 피해 평일 여유있게 관람
해설서 활용하면 작품 이해 도움

본전시

비엔날레 주 전시관에서 열리는 본 전시는 '첫장-뿌리를 찾아서 : 아시아 이야기 펼치다'와 '마지막 장 -길을 찾아서 : 세계도시 다시 그리다'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89개 작품이 선보인다.

첫장은 '신화와 환상', '자연의 몸', '정신의 흔적', '현재 속의 과거' 등 4개 소주제로 나뉘어 72명의 자가가 참여, 아시아 미술의 현대화, 세계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현대미술에 투영된 아시아 정신을 재조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아시아·중동·북미권역과 유럽, 남미 3권역으로 전시공간을 설정, 아시아의 시각으로 현대미술을 들여다본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제3섹터-시민프로그램 : 140만의 불꽃'에서는 비엔날레 전 기간 동안 전야제, 개폐막식, 열린비엔날레 등 24개 공연과 13개 전시, 3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빛카페와 빛가든에서는 재즈, 국악, 성악팀이 무대에 오르는 테마스테이지 공연과 상설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빛가든에서는 생활공예 체험창작 등 미술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소리로 듣는 미술체험','악기놀이터' 등 관람객들이 미술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람 요령

전시 작품을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전시의 주제와 기본개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전시관과 안내데스크 주변에 비치된 비엔날레 가이드 소책자와 리플렛, 해설서(3천500원)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난해한 작품을 접했을 때는 각 전시실에 배치된 전시 도우미나 도슨트(전시해설사)에게 물어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은 "무엇보다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마치 외국인을 만난 것 처럼 작품이 생소하더라도 대화를 시도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천 관람동선

비엔날레가 추천하는 관람 동선은 본전시관~빛카페~빛가든~야외공연장~민속박물관(열린아트마켓)~시립미술관(미술오케스트라·손아유 특별전)~국립광주박물관(동아시아의 색채전) 코스다. 주제별로 작품을 나눠 전시하기 때문에 관람동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번 비엔날레 달라진 것 들

시상제도 5개→2개로 압축
주전시관 중심 관람동선 간소화

제6회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시상제도 일원화, 관람동선 간소화, 아시아 3개국 비엔날레 여행패키지 상품 등 새로운 시도로 관객을 만난다.

비엔날레는 그동안 '빛고을 상', '광주비엔날레 상' 등 5개의 다른 명칭으로 운영된 비엔날레 수상작을 올해부터는' 광주비엔날레 대상'과 '광주은행상(후원상)' 2개로 확정했다. 상금의 경우 대상은 3만달러, 후원상은 5천달러로 상향했다.

비엔날레는 7일 비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상작품을 선정한 뒤 8일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동선을 비엔날레 전시관 일대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

이는 지난 5회 대회 때 전시장을 비엔날레관, 교육홍보관, 금남로 지하철 역사 등에 산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주 전시관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장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집중적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광주-상하이-싱가포르 비엔날레 등 아시아권 3개 비엔날레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패키지 여행상품도 나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